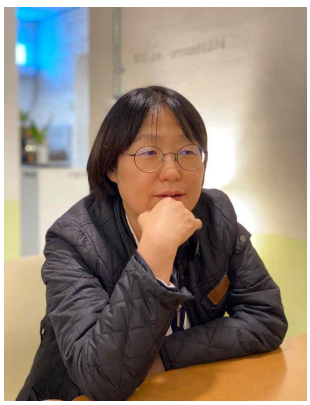
[첨부] 제11기 대표(단) 및 선출직운영위원 입후보자 경력사항 및 출사표

입후보자	경력사항
대표 입후보 최정화 	• (사)한국영화프로듀서조합 제10기 현 대표 • 2020년 현재 (주)문샷필름 대표 • 2016년 <밀정> 프로듀서 • 2013년 <런닝맨> 프로듀서 • 2011년 <최종병기 활> 제작관리 • 2006년 <중천> 프로듀서 • 2003년 <영어완전정복> 프로듀서
부대표 입후보 김정석 	• (사)한국영화프로듀서조합 제10기 현 부대표 • 2020년 현재 (주)고잉픽쳐스 대표 • 2020년 현재 (사)한국영화디지털유통협회 대표 • 2016년 <용순> 공동제작 • 2016년 <우리 손자 베스트> 제작, 배급총괄 • 2015년 전 (주)인디플러그 대표 • 2015년 <설행 눈길을 걷다> 배급/마케팅 총괄 • 2014년 <들꽃> 제공/배급 • 2014년 <오늘영화> 프로듀서
부대표 입후보 강원숙 	• (사)한국영화프로듀서조합 제10기 운영위원 • 영화진흥위원회 제7기 위원(2017년 10월 ~ 2019년 12월) • 타임와이즈인베스트먼트(주) 전 수석심사역 (재직중 150여편 약 750억원 프로젝트 투자) • '스타트업코리아, KVIC 2014' 문화부문 최우수심사역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표창) • 메인투자/관리 : <누구에게나 찬란한>, <심장이 뛴다>, <동갑내기과외하기>, <조선남여상열지사-스캔들>, <무사> 등 다수 • 제작/기획 : <잔혹한 출근>, <내 생애 최악의 남자>

출사표

회원 여러분 안녕하세요.
PGK 10기 대표 최정화입니다.
지난 2년간의 시간이 참 빠르게 지나간 것 같습니다. 공교롭게도 근로기준법의 개정과 저의 임기가 비슷한 시기에 맞물려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대한 이해와 여기에 맞는 계약서의 개선, 그간의 관행적인 계약형태의 변화 촉구 등에 많은 시간을 할애했던 2년이었습니다.

설명회를 통하여 개정 근기법을 안내하고 수많은 일 대 일 상담전화를 통하여 많은 대화를 나누었지만 아직도 여전히 미진함을 지울 순 없습니다. 2년간의 노력과 요구를 통하여 새롭게 게시된 표준계약서 역시도 여전히 만족스럽진 못합니다. 대형 법무법인, 건강검진병원, 세트장 등 여러 기관과의 MOU를 통하여 회원 여러분들의 작품이나 생활에 도움을 드리려고 많은 노력과 활동을 하였으나 그 결과 역시 만족스럽진 못합니다.
이렇게 만족스럽지 못한 상태에서 벌써 2년이란 시간이 흘러가고 임기를 마치게 되었습니다. 저보다 더 뛰어나고 열심이신 회원님들께서 차기 집행부를 맡아 더 나은 PGK로 매진하여야 함이 당연하겠으나 부족함이 있더라도 회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2년의 시간을 더 투자하여 보다 나은, 보다 실효적인 PGK를 만들어 나가 보겠습니다.

조합의 최우선 가치는 소통입니다. 소통의 기반위에서 발전도 있고, 반성도 있는 것입니다. 소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고 생각하였으나 여전히 부족함이 느껴집니다. 보다 나은, 원활한, 실질적인 소통을 위하여 더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PGK는 어느 덧 한국영화계의 중추적인 영화단체로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결코 어딘가의 눈치를 보거나 우리만의 아집을 내세우지 않고 한국영화의 가장 중요하고도 변별력 있는, 영화계 모든 구성원들이 기대고 의지할 수 있는 그런 단체가 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최우선의 가치는 우리 조합원 여러분들에게 있음은 당연합니다.

프로듀서가 사는 길이 곧 한국영화가 정상화되는 길이라고 하겠습니다. 산업의 논리와 예술의 논리, 고용주의 논리와 피고용자의 논리 등 자본의 참여가 필수적인 영화산업에서 부익부 빈익빈이 아니 모두가 행복하게 영화를 만들 수 있는 권리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한 편의 영화를 만들기 위해 그 문을 열고, 또 그 마지막 문을 닫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프로듀서들입니다. 영화제작의 최전선에서 오늘도 묵묵히 자신의 소명을 다하는 우리 프로듀서들이 행복할 수 있는 그런 영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더 노력하겠습니다.

2020년 01월 17일

제11기 대표단 후보 최정화, 김정석, 강원숙 배상

[첨부] 제11기 선출직운영위원 입후보자 경력사항 및 출사표

<1> 입후보자 이동하

입후보자	경력사항
운영위원 입후보 이동하 	• 2020년 현재 (주)영화사레드피터 대표 • 2020년 현재 <반도> 제작 중 • 2020년 현재 <프린세스 아야>(장편애니) 공동제작 중 • 2019년 <미성년> 제작 • 2019년 <생일> 제작 • 2018년 <염력> 제작 • 2016년 <카이:거울호수의 전설>(장편애니) 공동제작/프로듀서 • 2016년 <서울역>(장편애니) 프로듀서 • 2016년 <부산행> 제작

출사표

안녕하세요?
이번 한국영화프로듀서조합 선출직 운영위원 입후보자 이동하입니다.

개인적으로 PGK가 만들어진 이후로 줄곧 작업에 몰두하느라 곁에서 응원만하고 조합 안에서 같이 고민하고 머리를 맞대는 시간이 부족했습니다.

그동안 조합원들의 노고로 한국영화의 위상은 그 어느 때보다 많이 높아지기도 했지만, 빠른 속도로 변화하는 현재의 영화제작 환경은 조합원 개인이나 PGK 미래에 대한 고민과 숙제도 많은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운영위원으로 기회가 주어진다면 PGK 회원분들과 함께 회원 개인과 조합의 미래를 위해 조금이라도 일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 입후보자 어지연

입후보자	경력사항
운영위원 입후보 어지연 	• 2020년 현재 폴룩스(주)바른손 프로듀서 • 2013년 11월~2019년 07월 CJ CGV아트하우스 영화사업팀 팀장 • 2013년 <남자사용설명서> 기획/공동제작 • 2010년 <반가운 살인자> 제작총괄이사

출사표

투자/배급사에서 6년 가까이 투자/배급 업무를 하다가 다시 프로듀서로 복귀하게 된 어지연입니다.

현재 시점에서 저에게 가장 급하고 중요한 것이 프로듀서로서 작품 개발인 거 같아서, 최정화 대표님과 강원숙 부대표님의 운영위원 제안이 너무나 감사하지만, 그와 동시에 개인적으로는 부담이 많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투자/배급 업무와 마케팅 등의 제 경험이 프로듀서의 권익 향상과 다양한 정책연구 등에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는 두분의 말씀에 조금은 미약하지만 제 경험과 능력을 잘 활용하고자 이렇게 입후보하게 되었습니다.

중고등학교 이후로 이런 입후보에 나오는 게 처음이라 어색하지만, 조금은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 입후보자 문성주

입후보자	경력사항
운영위원 입후보 문성주 	• 2020년 현재 (주)스마일이엔티 아시아프로덕션 이사 • 2018년 재담미디어 영상사업단 제작본부장 • 2017년 CJ ENM 해외투자제작팀장 • 2017년 영화 <스위트 20>(인도네시아) 공동제작 • 2016년 영화 <CADO CADO:Doctor 101>(인도네시아) 공동제작 • 2016년 <내가 니 할미다>(베트남) 투자진행

출사표

영화제작사 기획실, 투자배급사의 투자/기획팀과 해외투자제작팀에서 영화일을 해 왔습니다. 공식적으로는 기획프로듀서와 공동프로듀서 밖에 없는데도 PGK의 운영위원회의 선출위원으로 출사표를 작성해도 되는 것인지 이 시간에도 많은 생각이 교차합니다. 다만, PGK의 설립 목적인 '한국 프로듀서의 권익강화와 영화산업환경의 향상'을 노력해 왔는가에 대한 질문에는 '그렇다'라는 개인적인 대답을 내려 보았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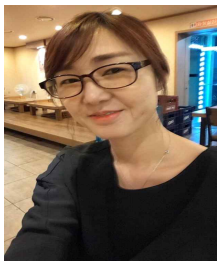
싸이더스FNH 투자팀장 시절, PGK 소속 프로듀서님들과 처음으로 대화를 나누기 시작한지도 제법 오래되었습니다. CJ ENM 해외영업팀에서 인도네시아 영화사업을 진행하면서 한국영화아카데미와 함께 프로듀서님들과 인도네시아 영화시장을 공부하던 기억이 납니다. 그 이후에도 온라인 통합전산망, 크레딧 전수조사, 기획개발 R&D센터 등 PGK의 사업 중 함께 실행한 것들도 있고, 아쉽게 마지막까지 진행 못한 사업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PGK 사업과 참 많은 관계가 있었다는 생각에 도달하였습니다.

PGK 소속이 아닌 프로듀서님들과도 영화제작/투자를 해 보았습니다. 영화 흥행에 PGK 소속이 어떤 도움이 되는지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PGK와 소속 프로듀서님들은 모든 프로듀서의 권익을 위해 목소리를 높였고, 불공정한 영화산업환경을 고치고자 가장 열심히 노력해 왔다는 사실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PGK의 존재가 그런 이유라면 어떠한 도움이라도 되고 싶습니다.

CJ ENM 해외투자제작팀장으로서 인도네시아, 베트남, 일본을 담당했고, 현재 스마일 이엔티에서 아시아 프로덕션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한국영화를 아시아 영화시장으로 확장해 왔습니다. 따라서, 하나, PGK 프로듀서의 개별작품은 물론 PGK 사업이 아시아로 확장될 수 있는 방법을 도모하겠습니다. 둘, PGK가 정부의 신남방정책과 KOFIC 진흥사업의 흐름에서 이탈하지 않는 목소리를 내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작년 12월 캄보디아에서 열린 '2019 한-아세안 3개국 영화산업 네트워크' 워크샵 자리에서 KOFIC의 국제사업에 대하여 '교류, 교역, 교육'의 측면에서 한국영화산업의 해외 확장을 지원해 달라는 의견을 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한국영화산업의 발전과 PGK 소속 프로듀서의 권익을 위해 아시아 영화산업과 교류하고, 교역하며 상호 교육이 가능하도록 작은 힘을 보태도록 하겠습니다.

<4> 입후보자 장유정

입후보자	경력사항
운영위원 입후보 장유정 	• 2020년 <히트맨> 프로듀서 • 2016년 <걷기왕> 협력프로듀서 • 2015년 <나는 증인이다>(한중합작) 라인프로듀서 • 2015년 <은밀한 유혹> 라인프로듀서 • 2011년 <오늘뭐해?> 프로듀서 • 2010년 <사랑한다, 사랑하지 않는다> 라인프로듀서 • 2009년 <혈투> 라인프로듀서

출사표

안녕하세요.
제11기 선출직 운영위원 입후보자 장유정입니다.

저는 2016년에 한중합작 영화를 준비하면서 PGK에 가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한중합작 프로젝트들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던 시기였는데 2016년 하반기부터 외부적인 상황변화와 내부적으로 캐스팅의 지연 등으로 작품진행이 어렵게 되었습니다.
긴 시간동안 많은 분들과 함께 공을 들인 프로젝트였는데 결과가 기대에 못 미쳐 큰 좌절과 상심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2017년, PGK에서 제작시스템 TF를 구성한다는 소식을 듣고, 용기를 내어 문을 두드리게 되었습니다.
2014년에 영화 <은밀한유혹>을 준비하면서 표준계약시스템과 관련된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당시 영화근로자표준계약 도입이 처음 이루어지면서 기존 계약방식에서 시스템적으로 큰 차이가 있었는데 그에 대한 정보를 얻을 방법은 노조와 직접 소통하거나 이전 표준계약을 진행했던 몇 작품의 제작진들을 만나 자문하는 정도였습니다. 이 과정을 겪으면서 가장 크게 어려웠던 점은, 길지 않은 프리프로덕션 단계에서 새로운 제작시스템을 갖추고,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스텝들과 반복되는 협상을 하고, 노조와 소통하면서 제작시스템에 대한 일방적이고 강성적인 요구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그 모든 진행의 책임은 오롯이 제작진이 져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어차피 정착되어야 할 제작시스템이라면 충분한 준비를 통해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할 텐데, 이런 사항을 같은 입장에서 누군가 함께 정확한 정보를 공유하고, 논의하고, 문제가 생겼을 때 해결방안을 함께 고민하고 나눌 수 있다면 얼마나 큰 힘이 되었을까. 라는 아쉬움을 갖던 차였습니다.

그렇게 참여하게 된 제작시스템 TF에서 같은 상황을 겪었던 많은 피디님과 함께 체계적으로 검토하고, 정비할 수 있는 자리가 이루어졌을 때 그 동안의 오랜 숙원이 풀리는 듯하였습니다. 무엇보다 혼자가 아니라 함께 한다는 유대감은 저에게 할 수 있다는 큰 힘이 되어주었습니다.

그리고, 2019년에 영화 <히트맨>을 PGK에서의 인연으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1년이란 기간 동안 작품을 진행하면서 기존에 접하지 못했던 새로운 안건들과 아젠다들이 있

었는데, 곤란하고 어려운 상황에 처할 때마다 저는 우리 조합의 도움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특히, 우리 조합에서 계속 추진해왔던 음악저작권 관련된 예민하고 긴밀한 사안들과 이제 제작사와 직접 개별협상을 진행하는 노조 관련, 그리고 제작 진행 중에 발생하는 이해관계가 얽힌 여러 문제에 대해 많은 자문과 적극적인 협조와 지지를 받았습니다.

무엇보다, 그 시간동안 한계를 겪어 무너져 내리고 포기하고 싶을 때마다 저를 버틸 수 있게 해주었던 것은, 이제는 혼자가 아니라는 것, 내 뒤에는 250분의 피디님들과 제작진들, 같은 길을 걸어온 선배님들이 있다. 그래서 어떤 어려움도 문제가 있어도 해결할 수 있다. 할 수 있다는 자신감과 든든함으로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조합에 많은 도움을 받았는데, 언젠가는 꼭 신세를 갚아야지. 하던 차에 선출직 운영위원 제안을 받았습니다.
제가 감히, 할 수 있을까. 훌륭하신 선배님들이 많이 계신데.
잘 할 수 있을까. 그렇게 고민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다시 돌아보니 그 동안 도움만 받았지. 조합을 위해 무언가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우리 조합을 위해 작은 일이라도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그리고 작품을 준비하면서 저와 같은 고민과 어려움을 겪는 조합 피디님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다면, 해보자. 우선 열심히 해보자. 라고 결심했습니다.

많이 부족하지만, 따뜻한 격려와 응원 주신다면 최선을 다해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 1월 30일에. 장유정 드림.